

112. 택시 운전기사에서 발생한 경추 3-4번 및 5-6번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3-4번, 4-5번, 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성별 남 나이 49세 직종 택시 운수업 업무관련성 높음/낮음

1. 개요: 홍○○은 OO운수(주)에 1996년 5월 입사하여 택시운전을 하던중 경추 3-4번 및 5-6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3-4번, 4-5번, 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 받았다.

2.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홍○○은 1996년 5월 7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약 11년 동안 택시 운전을 수행하였다. 근무형태는 2교대이며 일주일단위로 바뀐다. 2000년과 2006년을 제외하고는 매월 25-26일씩 꾸준히 업무를 수행하였다. 홍○○이 2007년 본인의 1일 주행거리를 250-300 km로 추정하였는데 시내의 일반 도로를 원활하게 주행하는 기준 최소 시속인 30 km/hr로 환산해도 약 8-10시간으로 대략 맞는다. 1시간 동안의 진동측정 측정결과 3축방향 진동 가속도값은 $0.556 \pm 0.1363 \text{ m/s}^2$, X축방향 진동 가속도값은 $0.249 \pm 0.0716 \text{ m/s}^2$, Y축방향 진동 가속도값은 $0.179 \pm 0.0523 \text{ m/s}^2$, Z축방향 진동 가속도값은 $0.353 \pm 0.0635 \text{ m/s}^2$ 로 나타났다. 이는 ACGIH에서 제안한 전신진동노출작업자의 1일 8시간 전신진동 노출기준 $0.5 \text{ m/s}^2 \text{ A}(8)$ 을 초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 결과는 1시간에 대한 측정값으로 실제 상황에서 동일하게 초과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3. 의학적 소견: 2004년 7월 경 요통이 발생해 한달간 결근한 이후 한의원 치료를 통해 회복되었지만 2005년 4월경 다시 재발해 허리에 대해 물리 치료를 받았고 2006년에는 경부 통증이 있어 경추간판탈출증도 있는 것을 알게되어 역시 함께 물리치료를 받았다. 2007년 1월에 조합을 통해 OO병원을 추천받고 1월 5일 방문하여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본인 거절하시고 물리치료를 받고 계신 상태이다.

4. 결론: 근로자 홍○○은,

- ① 경추 MRI 및 임상 소견, 수술 소견 상 ‘경추 3-4번 및 5-6번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3-4번, 4-5번, 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었고,
- ② 전신진동평가 결과, 허리 통증 유발 가능 진동인 7 - 20 Hz대에서 진동 주파수가 위험 수준에 있고,
- ③ 근속년수가 11년으로 길어 요부에 누적성 피로가 증가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외의 추간판탈출증을 일으킬만한 다른 요인이 없었으며,
- ④ 단,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운전 중 자세로 인한 인간공학적 요인이 배제되어 전신진동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업무기인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근로자 홍○○의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일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되었다. 단,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